깨지면 하나님께 아까울 인생판

(역대하 17:1~19)

3.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4.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5.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6.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깨지면 하나님께 아까울 인생판>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깨지면 하나님께 아까울 인생판'
카투사로 복무할 때에 주말이 되면 선임들이 고스톱을 쳤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졸병들이 미군부대 철조망 바깥에서 주민들에게 라면과 김치를 사서 끓여주었습니다. 라면이 다 되면 고스톱 판이 어떻게 되고 있었든지 간에 뒤집어엎습니다. 라면이 불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병의 판이 좋으면 최고참인 병장이 라면을 먹자며 판을 깨버리지만, 최고참인 병장의 판이 잘 풀리고 있다면 라면이 좀 불더라도 그 판을 다 마치고 먹습니다. 이게 판을 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판이 깨지면 아까워하실 인생판을 여호사밧이 벌렸습니다. 유다의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도대체 어떠한 인생판을 벌렸기에 하나님이 아까워하셨다는 것일까요?
3절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라고 합니다.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라는 말은 열왕기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오리지널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을 보여주신 것과도 같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말대로 아브라함의 신앙은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는 것인데 곧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일등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고향 친척 아비 집은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었으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우선적으로 보았고 소중하게 느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 번만 일등을 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여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에는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바침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이삭과 겨루어서도 일등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보다도 하나님이 더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을 통해 오리지널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한편 다윗의 신앙은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그 오리지널한 신앙을 원수들이 들끓고 급박한 사건들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도 구현하고 지켜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는 말입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사 왕은 초기에는 잘했습니다. 그러나 북 왕국의 바아사 왕이 수도 예루살렘 6킬로미터 지점 라마에 전쟁기지를 설치하자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보다도 우선적인 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되자 아람 왕 벤하닷에게 구원을 청하게 되고 다윗의 길이 끊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나 사울 왕의 추격을 받으면서도 언제나 이들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생활화를 통해서 우리처럼 평범하고 못난 사람들도 다윗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3~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알들에게 구한다.'라는 것은 부자 되고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바알에게 가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바알은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신으로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라는 것은 여호사밧 왕의 마음에서 돈이 일등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돈이 마음에서 일등이라면 그 돈을 실제로 손에 쥐기 위해서 바알들에게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의 마음에서는 마치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일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잃기 싫어서 고향을 떠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호사밧 왕의 마음에서도 돈이나 부흥보다 하나님께서 일등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등 되는 삶을 위해서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라는 말이 병행하여 나온 것은 곧 성전을 생활화했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죄의 체질로 하나님이 아닌 육체가 만나는 이 세상의 가치 있는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일등으로 만들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일등이 되어버린 내 마음이 성전에서 상번제로 드려지는 어린양이 죽을 때에 같이 죽는 것을 고백함을 생활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에게서 이렇게 영광된 하나님이 보이도록 유지하는 삶이 계속되자 5절에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 충성했더니 복을 주셨다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런 것을 소위 신학적으로는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구약을 공부하는 분들이 있다면 신명기적 역사관의 허와 실에 대해서 논문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내용의 본문이 아닙니다.
본문을 이해할 때에 여호사밧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을 일등으로 모시기 위한 성전을 생활화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백성들은 여호사밧을 존경하고 사랑하여 예물을 드렸으며 그 부귀와 영광을 떨쳤는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신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여호사밧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입고 원죄의 체질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그 마음을 끊임없이 번제단에서 죽은 것으로 인정하므로 하나님이 일등 되기를 원하는 삶을 고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신 것은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을 일등 되게 하시는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해가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형성해 주시고 울타리를 치시고 그 판이 지켜지도록 조치를 강구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상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일등으로 모셔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이고 또한 일등이 되신 하나님을 보고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일등으로 가짐으로서 이 세상 것들을 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납과 금의 가치를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금 100kg를 얻은 사람에게 상으로 납 100kg를 준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일등으로 얻은 것이 곧 금 100kg를 얻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자체로 진정한 만족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갖기를 자기 인생의 과제로 삼은 사람들의 인생의 판을 깨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변을 정리해주신 것인데 이것이 마치 인생의 상인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갖기 위해 힘썼더니 나라나 사업이나 자녀의 삶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돈 많이 벌고 형통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일등 하시게 하는 것을 내 인생의 과제로 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판이 깨지지 않도록 주변을 정리하시고 필요한 조처를 취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고귀한 삶이고 소중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까워하시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여호사밧 왕은 다윗의 길을 걸으며 성전 생활화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방백들과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파송하여 백성들을 교육시킵니다. 9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라고 합니

다. 모든 백성들이 다 자신과 같기를 바랐던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러한 교육을 받은 백성들은 여호사밧 왕처럼 마음에 하나님을 일등으로 모시기 위해 성전에서의 상번제를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급한 일이 있을지라도 지금 성전에서 죽고 있는 어린양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어서 10절과 11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 곧 숫양 칠천칠백 마리와 숫염소 칠천칠백 마리를 드렸더라'라고 합니다.
이제는 가르침을 받은 백성들이 여호사밧 왕과 같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일등으로 모시기 위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업 현장에서도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먼저임을 드러내고 표현하기 위해서 사업장에 나갑니다. 자식을 키우는 현장에서도 자식보다도 하나님이 먼저라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과제로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육체가 너무나 소중하지만 육체를 주신 이유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라고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이 늘어날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 판이 깨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변 이방나라들의 왕에게 두려움을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지켜지고 조공까지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대의 아사 왕 말기에는 하나님의 일등 되심을 잃었기에 북 왕국 이스라엘 왕에게조차 침략을 받아서 수도 예루살렘에 인접한 곳에 전진기지를 만들게 되었던 것과 대비됩니다.

우리에게 이상이 있고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꿈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 중에서 서너 가지라도 있었으면 이루어졌을까요? 아침 형 인간이 아니라서 안 되었을까요? 스펙을 쌓고 자기계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꿈을 이루려는 내 인생의 판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까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아까운 마음이 드는 인생의 판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지키십니다. 여호사밧 왕 때처럼 나라까지 견고하게 하십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5년 임기 중에 4년이 끝난 시점에 발칵 뒤집혀서 탄핵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와대의 많은 공직자들이 수갑을 차고 특검에 들락거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아까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뒤집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크지도 않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이루어진 인생 판이 하나님께 아깝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드 배치가 논란입니다. 저는 보수적 성향의 집안에서 자란 보수적인 사람이라 사드 배치에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걱정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하나

님보다도 사드를 더 믿고 미국을 더 믿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야 미국과의 동맹이 깨지는 편이 낫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조차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보존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미국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지켜주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켜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일등으로 모셔야 한다는 삶을 모든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들과 왕들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채우셨습니다. 그 판을 깨지 않으시려고 보존하십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국민들이 하나님께서 아까워하실만한 인생 판을 벌려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안보를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사드를 더 신뢰한다면 그 행동이 맞을까요?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 만으로도 미국의 국력이 이제까지와는 방향을 바꾸어 반 이민정책과 자국보호정책으로 돌아섰습니다. 또한 중국이 아무리 강하고 북한의 김정은이 아무리 날뛰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부담감을 주신다면 핵무기가 산더미처럼 쌓이더라도 그것들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치열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일등으로 모시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판을 깨지지 않기 위해 주변 강대국들의 마음조차 움직이실 것입니다. 돈 자녀 형통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을 평생 일등으로 모시기로 결정할 때에 주변국들이 가진 막강한 힘이 아무런 의미도 없게 하실 것입니다.

누가 나라를 지킬 것입니까? 중국이나 미국과 친해야 합니까? 일본에서는 독도 문제로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소녀상을 문제 삼고 혐한 감정으로 분쟁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라들 속에 하나님을 제일 우선적으로 끊임없이 성전을 생활화하고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백성들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아까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선민의 나라 북 왕국 이스라엘과 남 왕국 유다조차 성전의 생활화를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 하나님이 일등 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아까워하실 수가 없어서 버리셨습니다.

나 개인의 삶이 어떤 인생 판이며 우리 국가의 판이 어떻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보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일등하시는 마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과제입니다. 사업가 예술가 선생님 목회자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은 목회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일등이신 하나님으로 만족해야지 교인 숫자나 교회 재정으로 인해서 기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까워하시고 유지시키시기 위해 판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깨지면 아까워하실 나라의 판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은 곧 내가 십자가를 생활화하고 이웃에게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내가 아까워하는 인생판을 사느라 이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까워하실 인생을 살기 위해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이제까지의 판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